

# ‘미래인재 육성’ 해남 장학사업기금 234억 돌파

군, 2032년까지 500억 목표...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명현관 군수 “교육 통해 더 나은 해남 구축 노력 최선”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이 지난해까지 234억원을 돌파하며 2032년까지 500억원 조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 학습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목표

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32년을 목표로 매년 군 출연금 30억원 적립과 군민·향우 등의 자발적 기탁이 더해지며 사업추진 5년여만에 123억14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당시 110억9700만원에 비

해 두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발전 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지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장학사업기금 기탁식을 진행 했다. 기탁식에는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 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여러 단체와 개 인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탁에는 해남진도축협(조합장 한중 회), 원광전력려(대표 전연수), 해남문인

화협회(회장 노병호), 구보다농기계 해남 대리점(대표 이병현), SK전기안전관리 (대표 박종섭), 학동농장(대표 박흥규), 해남노인요양센터(원장 임재운) 등이 참 여했다. 올해로 5년째 기탁을 이어오고 있는 해 남진도축협은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 역 중견기업인 원광전력도 500만원을 기 탁했다. 구보다농기계 해남대리점 이병현 대표 와 SK전기안전관리 박종섭 대표도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속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매년 땅끝목향전 판매 수익금과 회원 들의 모금을 통해 장학사업기금을 기탁 해주고 있는 해남 문인화협회는 노병호 회장이 13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학 동농장의 박흥규 대표도 200만원을 기탁 했다. 해남노인요양센터의 임재운 원장은 40 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임 당일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큰 감동을 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교육재단을 출범하고, 아동·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강좌, 성인 문해교육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장학기금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해남 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원아·교사 정성 모아 나눔 동참 목포 목암동 소재 아델리움어린이집은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30박스를 목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엔 전달된 라면은 아델리움어린이집이 매년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바자회 ‘마음나눔 행복장터’를 통해 마련된 물품으로, 원아 29명과 교사 11명 등 총 40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진제공=목포시

## 광양, 지난해 인구 15만7636명...4년 연속 증가세

기업 입주·생애주기별 복지정책·청년인구 증가 등 주요

광양시 인구가 기업 입주와 복지정책 등에 힘입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 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는 15만7636명(외 국인 포함)으로, 전년도(15만4692명)에 비해 698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시 인구 증가세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만2036명, 2022년 15만3950명, 2023년 15만4784명, 2024년 15만6938명, 2025년 15만7636명이다. 또 외국인도 지난 2021년 1505명, 2022년 1782명, 2023년 2118명, 2024년 2246명, 2025년 2377명으로 매년 증가했 다. 증가 규모는 2022년 1914명, 2023년

834명, 2024년 2154명에 비해 지난해 69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광양시의 4년 연속 인구 증가는 기업 입주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에 따른 출산 을 증가, 취업에 따른 청년인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철강, 이차전지 등 기업입 주와 지역특화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등 으로 고용인원이 1100명이나 증가해 총 취업자수가 8만6700명(상반기)에 달하 고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비, 주택자금 지원 등 청년 정책확대를 해 나

가고 있다. 또 출생아수도 2022년 867명, 2023년 832명, 2024년 941명으로 증가하고, 합계 출산율도 2022년 1.06에서 2023년 0.996, 2024년 1.090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봉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광 양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생 률 상승과 청년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 정 책, 일자리 기회,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 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화순, ‘화순사랑상품권’ 800억 규모 발행

10% 선할인 유지...2~5% 캐시백 결할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화순사랑상품권’ 을 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군은 지류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 선할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10%를 초과하는 추가 할인의 경 우에는 결제 시 적립되는 캐시백 방식으 로 운영. 1월 한 달간 모바일 화순사랑상 품권으로 결제 시 2% 캐시백 혜택을 추가 로 제공한다. 또 화순군은 지난해 129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5% 캐시 백 적립, 추석 명절 및 연말 구매 한도 200만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운영하 며, 약 1000억원 규모의 화순사랑상품권 을 발행했다.

화순사랑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 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유입 이 확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행 규 모와 혜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 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모바 일 화순사랑상품권의 사용률을 높이고 실 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중심의 할인 혜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품권 할인판 매 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 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 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장흥,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대폭 상향

지역 건설업체 경영부담 완화·지역경제 활력 기대

장흥군은 1월부터 1인 수의계약 낙찰하 한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 재가격·노임단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덜 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 진됐다. 군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 돼 온 낙찰률이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현 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낙찰하한율 조 정에 나섰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 진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용역·물품 1인 수의계약 낙찰률 은 1000만원 이하는 기존 95%(500만원 이하는 100%)에서 100%로,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기존 93%에서 98%로,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기존 90%에서 96%로, 2000만원 초과는 기존 88%에서 93%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 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를 막아 공사 품질 과 안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정돼 있던 낙 찰하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 역업체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사 품질은 높이고 지역업체는 키우는 계약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4차 부정적 공식 회신 발송

목포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 치와 관련해 허가권자인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네 번째 부정적의견을 공식 회신하며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제출 한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허가 청인 영 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타당성 검 토 결과에 대해 최근 ‘부적정’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 며 이번이 네 번째 제출이다. 목포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 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네 번째 ‘부적정’ 의견을 전답했다. 이번 부적정 회신은 단순한 법률 검 토에 그친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 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과 지역사회 전반의 우려, 의료폐 기물 소각시설이 생활환경과 시민 건 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 질과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목포시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 시설이 입지 하는 것에 대해 시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 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일관되게 부정적 또는 반대 의 견을 제출해 왔으며, 목포시의회와 지역사회 역시 해당 시설 건립에 대 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시는 앞으로도 허가권자인 영 산강유역환경청이 관련 절차를 진행 할 때 지역 여론과 시민 수용성, 환경 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 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 청할 계획이며, 향후 영산강유역환 경청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결정 이 내려질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 안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최 우선으로 반영해 일관된 반대 입장으 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나주시보건소에서 개최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적합성 평가 모습.

나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선정

2026~2029년...남도 미식문화 중심지 위상 강화

전남도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개최지로 나주시가 선정 돼 남도 음식문화와 미식 관광을 선도하 는 중심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로 나 주가 최종 선정됐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30여년의 전통 을 가지며 남도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남도 대표 음식문화 축제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공개 공모 방식으 로 진행됐으며, 나주시는 2025년 11월 공 모를 신청한 뒤 12월 19일 개최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고 같은 달 31일 남도음식 문화큰잔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 최지로 확정됐다. 잠정적으로 행사 장소

는 영산강정원 일원이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국제행사 규모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남도 음식문화 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음식 경연 프로그램, 판매 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선정은 나주시의 음식문화 경쟁력 과 축제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 은 결과다”며 “남도 음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2026 나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미 식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 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